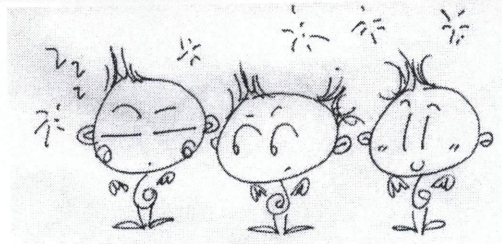


화 장 실 신 문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화장실 신문 7호 (2002.6.17)

안녕하세요.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입니다. 이제 6월의 둘째 주입니다. 다들 여름 방학을 맞을 준비들은 하고 계신가요?



기분좋은 움직임

안녕하세요 벌써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한 학기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어떻게 한학기가 지나갔는지.. 이제 바쁜 한학기가 지나고 나면 다들 조금은 여유있는 방학을 맞으시겠네요.

이제 화장실 신문도 **마지막입니다**. 바쁜 한학기, 총여학생회에서 벌인 일들을 알아보까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 1월과 2월**에는 새터 내규를 준비했습니다. 그와 함께 학기가 시작하기 전의 일년 계획의 **새웠습니다**.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하구요. 그리고 3월에는 총여학생회의 첫 행사가 있었지요. 여학우 **새로** 배움터와 여성학 학교입니다. 강연회와 세미나 등을 기획단 친구들과 준비하고 새내기 **여학우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이번 총여학생회의 야심찬 기획! 떡볶이 수다도 **발간되었지요**. 또, 3월에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기념 **뽕지도 판매**하고, 외부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3월을 **바쁘게 보낸** 총여학생회는 비교적 조용히 4월을 보냈습니다. 떡볶이 수다 4월호를 발간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장실신문을 지속적으로 만드면서, 5월에 있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5월은 행사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던 바쁜 달이었습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획단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구요, 취업행사인 여대생 취업대란과 성교육 행사 Body Talks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5월을 **보내면서** 6월의 준비를 같이 했구요, 그래서 6월초에는 총여학생회의 마지막 행사인 **밥.꽃.양 삼영이** 있었습니다.

와아~~ 한학기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군요^^ 다음학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나왔다! 뽕!



<<기분 좋은 움직임들~~~>>

점심시간, 밥을 먹은 **후에 학관 앞**을 서성인다. 여느 때에 비해 학관 앞에 booth들이 많다. '학생회에서 설치한 건가?', '동아리에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booth 앞으로 힐끗 가서 보는데 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각 조 프로젝트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양하다.

‘월경 다시 보기’, ‘대중가요 알고 부르기’에서부터 ‘오빠’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 형식들엔 독특한 것들이 많다. ‘고전적인’ 자보전과 화장실 신문에서부터 프로젝트 내용에 관련한 연세인들의 인터뷰 내용 방영, 퍼포먼스와 마임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게 무슨 문제야?”라는 가우똥거림에서부터 “맞아, 정말 나도 이런 생각 했었어!”라는 공감의 표현까지.

이렇듯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 얘기하기’는 사실 많은 부분 일부의 사람들이 주로 얘기해온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내에서 반성폭력에 관련한 얘기들을 포함한 그 밖의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여학생회 혹은 다른 여성주의 자치단체들만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free Akaraka에서 학생회관 앞에 개제한 자보의 의견란에 썩여져 있던 글은 한 예이다. 그 글엔 free Akaraka는 ‘총여가 만든 유령단체’인 ‘두입술’이 또 탄지걸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 이는 총여 혹은 여성주의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언한다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가시화 하려는 것이며, ‘설마 내 주변에 있는 여성이 여성주의자??’라는 식으로 자꾸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많은 것들에 불편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캠퍼스 곳곳에서의 여성주의적인 움직임들은 많은 여학우들에게 해소의 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시.원.한. 게.시.판.

총여

(학생회관 3층에 오시면 총여학생회실을 찾을수 있어요~)